

## “통쾌하다” 전국노동자대회 사수 2만 노동자·시민, 문재인 정부 방해 뚫고 집결 ... 불평등타파 선언

금속노조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1주기를 맞아 연 ‘2021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지켜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 19 핑계로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내 주요 지하철역사 폐쇄·무정차 통과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지만, 평등사회 건설을 바라는 2만여 명의 노동자·민중을 막는 데 실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신도림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계이츠 해고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고용승계 쟁취를 외쳤다. 대구지부 한국계이츠지회는 4일부터 농성 투쟁을 벌이면서,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한국계이츠 공장과 용지를 인수한 대성산업이 한국계이츠 해고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전 결의대회를 마치고 신길역에서 집결해 본대회장인 여의도 공원까지 행진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부와 경찰의 방해로 동대문역 인근 집결로 방향을 틀었다. 금속노조는 홍인지문 사거리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을 가득 채웠다. 노동자대회 집회 전체 대오는

홍인지문 사거리 중앙에 임시 무대를 두고 십(十)자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당당하게 민중의 권리를 찾아가자. 민주노총이 불평등을 타파하고 한국 사회 대전환의 깃발을 올리자”라며 평등사회 건설을 향한 민중총궐기 투쟁을 호소했다.

본대회 투쟁사에 나선 이병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얼마 전 현대차 자본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범죄행위 불법과건을 감추기 위해 자회사 신설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며 “현대차

자본은 국민 눈과 귀를 속이고, 문재인 정부와 이 나라 권력기관은 재벌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병용 지회장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투쟁은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 정규직 자회사 꼼수를 멈추고, 불법과건 노동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20대 대선을 민주노총이 주도하자. 정치총과업으로 저들에게 강력한 편지를 날리자.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은 대세다. 반드시 투쟁해서 승리하자”라고 크게 외쳤다.

민주노총은 대회 막바지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다섯 개 진보정당과 민주

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치세력에게 더는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라며 “20대 대선을 불평 등타파, 한국 사회 대전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인다”라

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전국노동자 대회 전날인 11월 12일부터 여의도 광장을 버스로 가득 채워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와 혐오감을 줬고, 청계천 전태일다리 주변을 경찰 병력으로 에워싸는 등 노동자를 막

고 가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대회를 막기 위해 대회 당일 시청역, 동대문역,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입구를 봉쇄하고 무정차 통과시켰고, 곳곳에 차벽과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 “해고는 살인이다, 생존권 보장하라”

### 해고 없는 세상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문재인 정권 규탄하며 청와대까지 행진

금속노조 해고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외면하고 짓밟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 대선 노름에 빠진 정치권을 규탄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금속노조가 11월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해고 없는 세상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해고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에는 1년에서 10년 넘게 생존을 걸고 복직 투쟁을 전개하는 해고노동자 460여 명이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떠들었던 노동 존중은 과연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산업이 잘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은행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 해고노동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창원부품물류센터의 생산성은 글로벌 지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일을 못 해서, 돈을 못 벌어서 나가라고 했다면 그냥 나갔을 것이다”라면서 “부품물류는 한국지엠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장인데도 폐쇄했다”라고 폭로했다.

허원 지회장은 “창원물류가 폐쇄된 지금 하나 남은 세종물류는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이 강조하는 효율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지엠 자본의 이윤만 챙기는 구조조정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진환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교선부장은 “16년째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다. 2013년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는데 복직하지 못했다. 당시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다. 억울하고 분했다. 이렇게 16년을 버텼다”라며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020년 1월 창원, 부평공장 구분 없이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진환 교선부장은 “11월 1일 자로 부평공장에 퇴직자가 생기면서 제가 복직할 순서가 됐는데 회사는 거부하고 있다”라며 “창원과 부평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 동지들의 믿음으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한국케이츠 부지를 인수한 대성산업 본사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 대구지부 한국케이츠지회와 20년 동안 네 번 해고 당한 시그네틱스분회가 투쟁사를 이어갔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네거리로 이동했다. 청계천 입구 소리탑 앞에 집결해 깃발을 올리고 ‘해고자 당장 복직’ ‘생존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의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노조는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파렴치한 노동자 탄압을 알리는 행동을 했다.

# “공장인수 대성산업, 한국계이츠 고용승계해야”

## 노조·시민사회 “해고 문제 알고 한국계이츠 인수한 대성산업 책임”

금속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신도림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한국계이츠 19명 해고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성산업 고용 승계 촉구 시민사회·민중진보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준) 등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계이츠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 시민들은 입을 모아 한국계이츠 부지와 공장 건물을 사들인 대성산업이 한국계이츠 해고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투기자본 먹튀로 대량해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제도 미비를 핑계로 손 놓고 있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성산업에 해고노동자 19명의 고용 승계를 위해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대성산업은 노조와 만남을 거부한다. 한국계이츠 대구공장과 땅만 샀을 뿐이라며 해고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한국계이츠 노동자들은 유령이 아니다. 해고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대성산업은 해고자 문제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한국계이츠 공장을 사들였다. 이 사실만으로

한국계이츠 노동자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자본 먹튀에 대한 정부 역할 부재 문제도 제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미국 계이츠 자본은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정부의 온갖 혜택을 다 받았는데, 한 마디 얘기 없이 폐업을 통보하고 도망갔다”라며 “외투 자본 먹튀 당한 노동자들이 500일 넘게 싸우는데 정부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성산업이 공장을 들리려면 일손이 필요한데, 바로 한국계이츠 노동자들이 있다”라며 “대성산업을 만나 설득하겠다. 한국계이츠 노동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서울에 올라온 만큼, 금속노조는 끝까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해유 노조 대구지부 한국계이츠 지회 사무장은 투쟁 경과와 상경 투쟁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대구

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대구시청 앞에서 70일 넘게 단식도 해봤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송해유 지회 사무장은 “대성산업이 음식 반입을 막아 본사 11층에서 농성하는 조합원들이 사흘째 식사를 못 하고 있다. 속상하다”라며 “대성산업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다. 쉽게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 꼭 승리해서 대구에 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구의 알짜·흑자기업 한국계이츠 자본이 먹튀를 했는데, 정부는 막을 법이 없다며 가만히 있다. 정부가 나서서 외국자본 먹튀 규제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성산업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 승계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자리에서 노조 대구지부, 서울지부와 한국계이츠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대성산업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성산업 본사 건물 조합원들을 향해 지지의 함성을 날리고, 사측을 향해 하루빨리 금속노조와 대화에 나오라고 외쳤다.